

- 주요 뉴스: 美 9월 개인소비지출, 0.6%(mom)로 예상치 상회. PCE 물가도 0.3% 상승
 - 유로존 주요국 소비자물가, 예상보다 높게 상승
 - 옐런 미 재무장관, 미국 경제에 침체신호는 아직 없다고 평가
 - 구로다 BoJ 총재, 일본 경제 부양을 위해 완화정책 지속 시사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 긴축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혼조

주가 상승[2.6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9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애플 실적 호조 여파로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
유로 Stoxx600지수는 주요국 물가 급등 여파로 상승폭 제한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등으로 강세
유로화가치는 보합, 엔화는 0.9% 절하
 - 금리: 미국 국채 금리는 9월 美 PCE 호조에 따른 긴축지속 전망으로 상승
독일은 EU 기준 조화 CPI가 전월비 1.1% 상승하며 금리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21.8원, +0.5원) 0.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0/28일	10/27일	전일대비			10/28일	10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01.1	3,807.3	2.46%	국채 금리 10y	미국	4.01%	3.92%	9bp
	유럽	410.76	410.19	0.14%		독일	2.10%	1.96%	14bp
	중국	2,915.9	2,982.9	-2.25%		영국	3.48%	3.40%	8bp
	일본	27,105	27,345	-0.88%	CDS 5y	한국	66bp	65bp	1bp
	한국	2,268.4	2,288.8	-0.89%		중국	28bp	28bp	0bp
환율	달러지수	110.67	110.59	0.07%	위험 지표	EMBI+	120	116	4bp
	유로화	0.9965	0.9964	0.01%		VIX	-	453	-
	엔화	147.60	146.29	-0.89%	원자재	WTI유	25.75	27.39	-5.99%
	위안화	7.2524	7.2290	-0.32%		구리	91.13	89.08	2.30%
	원화	1.1615	1.1565	0.43%		금	342.9	352.0	-2.5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**美 9월 개인소비지출, 0.6%(mom) 상승으로 예상치 상회. PCE 물가는 0.3% 상승**
 - 미국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.4% 증가하며 예상치 부합. 처분가능소득도 0.4% 증가한 가운데, 임금소득은 0.6% 증가,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보합 기록. 한편 정부부문 이전소득은 0.1% 감소
 - 개인소비지출(PCE)은 전월비 0.6% 상승하며 예상치(0.4%)를 상회한 가운데, 실질 PCE도 0.3% 상승으로 예상치(0.2%) 상회. 한편 개인 저축률은 3.1%로 전월(3.4%)보다 하락
 -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.3%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, 전년동월비 6.2% 상승. 근원 PCE 상승률은 전월비 0.5%이며 전년동월비 5.1% 상승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**엘런 미 재무장관, 미국 경제에 침체신호는 아직 없다고 평가**
 - 현재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에 있으며,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. 매우 강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경기침체 신호는 없으나, 고물가로 인한 미국인들의 고통은 인정. 물가 진정 노력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
- **구로다 BoJ 총재, 일본 경제 부양을 위해 완화정책 지속 시사**
 -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임금이 3%는 상승해야 한다고 판단.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에 나서거나 금리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
 -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나, 일본은행의 YCC 정책이 엔 약세를 견인하는 것은 아니며, 투기적인 환율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안정을 이끌 것으로 주장
- **유로존 주요국 소비자물가, 예상보다 높게 상승**
 - 독일의 EU기준 조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1.6% 상승하며 지표 집계 시작된 '97년 이후 최고치 기록. 독일 자체 기준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10.4% 상승하며 '92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
 - 프랑스의 조화 CPI는 전년동월비 7.1% 상승하며 예상(6.5%)을 상회.

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

- 이탈리아 조화 CPI도 전년동월비 12.8% 상승하며 예상치(9.9%)를 크게 상회하였고 전월비로도 4.0% 큰 폭 상승

■ 독일, 3분기 성장률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확장세

- 시장에는 마이너스 성장(-0.2%, 전기대비)을 예상했으나, 실제 0.3% 성장하며 확장 흐름 지속. 전년동기비로도 1.1% 성장하며 예상치(0.7%) 상회

■ Fitch, Credit Suisse 구조조정 계획의 위험성 지적

- CS가 27일(목) 자본조달 계획, 사업재편 및 처분 등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며 '25년까지 기본 자기자본 비율을 13.5%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으나, Fitch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
- 투자은행 규모를 축소하고 자산관리에 자본을 재할당하는 구조조정은 상당한 실행 위험을 수반하며, 이를 통해 25억 스위스프랑을 절약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은 29억 스위스프랑으로 추산

■ 모히니한 BofA 회장, 현재 미국 경제는 '둔화'가 아닌 '완화' 국면

-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둔화한다면 소비 둔화가 선행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
- 소비자들이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고 실업률도 낮으며 임금도 상승중인 상황에서 성장 둔화(slowdown)보다는 완화(mitigation)가 적절한 평가. 다만 러우 전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내년초중반 경기가 침체를 겪을 수도 있음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잠정 주택판매(전월비): -10.2%, 8월(-1.9%), 예상치(-4.0%)
-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: 59.9, 잠정치(59.8), 예상치(59.6)
- 유로존 10월 경제신뢰지수: 92.5, 9월(93.6), 예상치(92.4)
- 유로존 10월 산업신뢰지수: -1.2, 9월(-0.3), 예상치(-1.5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3, E-mail jchwang@kcif.or.kr